

의학교육과 재교육: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가?

김소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Remediation in Medical Education

Soyun Kim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저서: 의학교육과 재교육

저자: Adina Kalet, Calvin L. Chou

역자: 양은배

출판사: 한국의학원

출판연도: 2017년

쪽수: 570쪽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 책의 저자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으로 서문의 첫 장을 연다. 아마도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목적이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번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특정한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는 경로를 여러 번 수정하며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현대 의학교육은 역량중심의 교육이다. 과거의 의학교육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 의학교육은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를 강조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한 것이다. 변화한 교육과정에서 대학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역량

을 설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그 역량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역량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역량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설정된 역량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재교육은 경로를 수정하는 과정과 같다. 의사라는 목적지를 향한 길을 가다가 간혹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혹은 멀리 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 경로를 바로 잡아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역할 말이다.

이 책은 34인의 전문가들이 18개월 동안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저술되고 편집되었다. 이 전문가들은 수련생들, 특히 위기를 겪고 있는 수련생들을 다루어 본 깊고도 풍부한 경험이 있었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저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련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 교육전문가들의 지혜로우면서도 혁신적인 노력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재교육에 대한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지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역량과 사정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더불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 신체진찰, 임상 추론의 사정, 전문직업성을 다루면서 여기에 적용되는 인지과학 및 학습과학을 함께 다루어 개념적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수련생의 정신과적 문제를 재교육의 맥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를 탐색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탈진,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수련생들을 대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재교육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메타인지가 어떻게 전문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성찰, 피드백, 코칭과 같은 실질적으로 유용한 자원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4부에서는 재교육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관점을 알아본다. 프로그램 책임자를 준비시키는 방법, 학장실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재교육 실행을 위한 준비 등을 논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재교육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다룬다. 끝맺는 말로는 재교육에 대한 학생의 관점이 반영된 성찰로 책은 마무리된다. 이 글은 과거 의과대학 시절을 회고하며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수련생의 성찰 에세이이다. 이 글은 허약하고 방황하던 수련생을 건강한 의사로 이끈 재교육과정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역자 서문에서 한국의 한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학자로서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와 관련된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대한 글을 번역하면서 경험하였을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 모든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대장정의 길을 마치고 번역서를 출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간 우리나라말로 된 자료가 부족했던 시기에 이 책의 번역서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자들의 연구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재교육을 위한 설명서만이 아닌 현대 의학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의사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여러 면에서 골고루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내용들 또한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교육뿐 아니라 의학교육 전반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의학교육전문가들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재교육은 언제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교육자로서 의과대학생과 수련생을 목적으로 안내하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본다.